

경쟁사 분석

-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봤을 때 ‘트리플’ 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앱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른 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위주로 살펴 보았습니다!!

분석한 앱

dailytrip

광고가 없어서 앱이 깔끔하고 보기 좋음

커버 사진 수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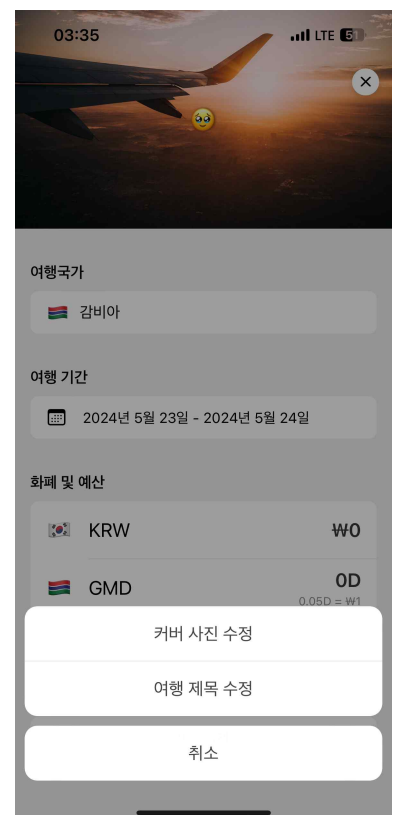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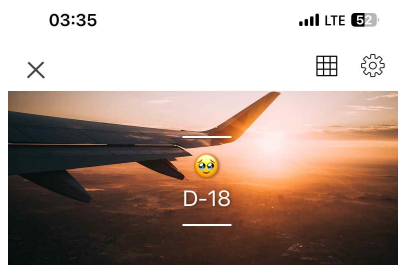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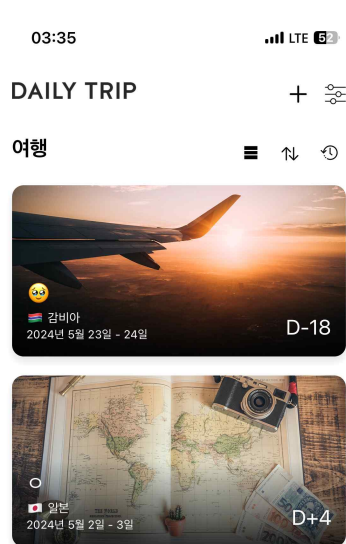
일정 클릭하자마자 가게부가 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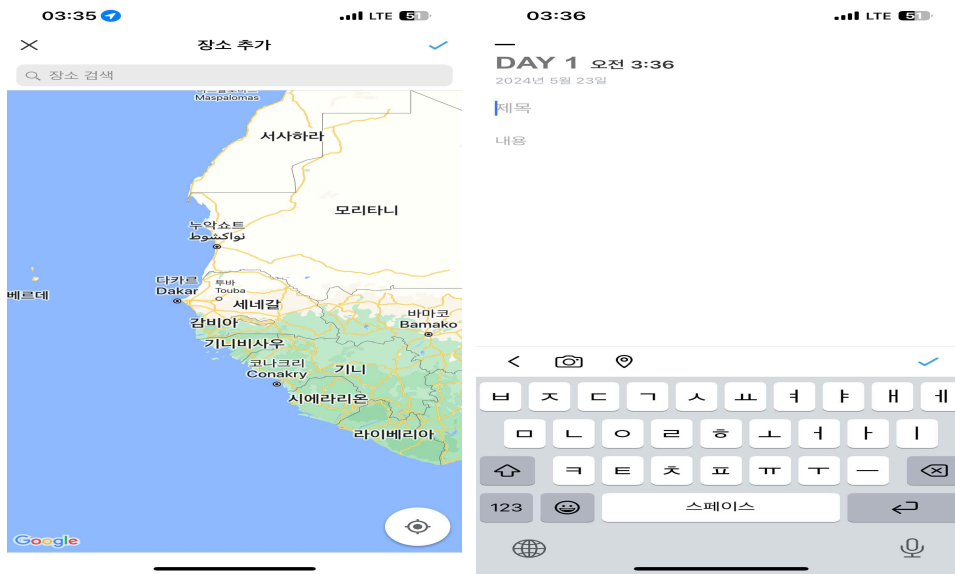
장소를 검색할 때 뜨는 지도가 매우 크지만, 여러 검색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네이버에서 미리 갈 곳을 다 찾아 보고 등록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-> 트리플 앱에서는 여러 후기들이 있었고, 추천탭도 있었음

여행에 대한 내용 적을 수 있음, 사진 등록 가능, 일기 기능, 체크리스트, 환율 기능

예약한 항공권, 호텔, 음식점 모두 등록 가능하나 앱 내에서 바로 예약할 수 없음

이동수단 등록 기능, 시간대, 다크모드 x





hotsgo plan

장소를 검색할 때 뜨는 지도가 매우 큼

길찾기 기능 제공

앱이 렉이 상당히 많이 걸림

코드를 사용하여 일행과 같이 계획 수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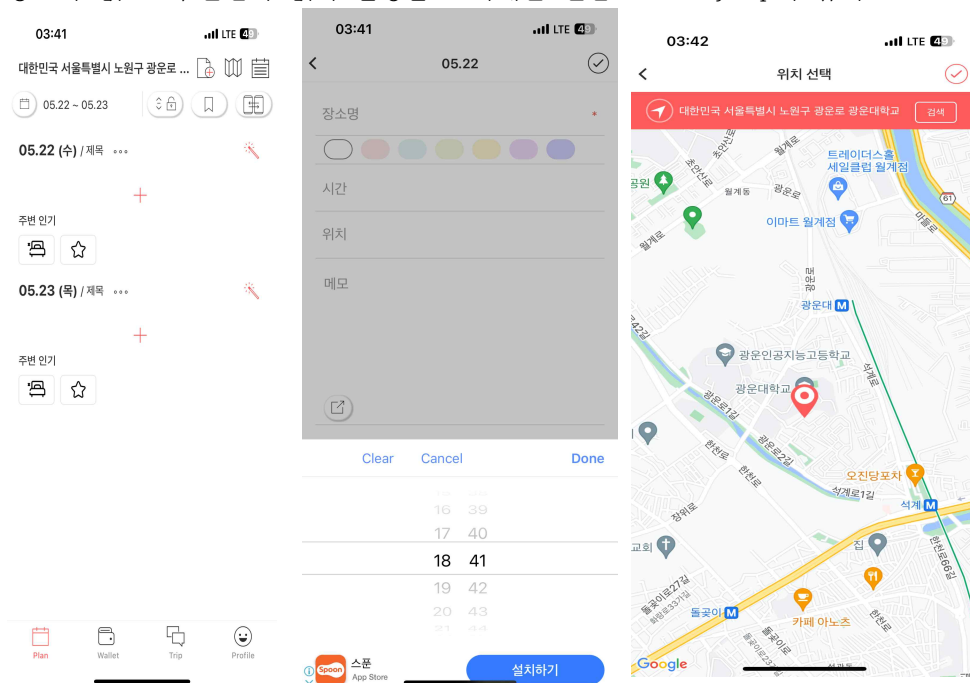
하단부에 가계부가 있어 바로 접속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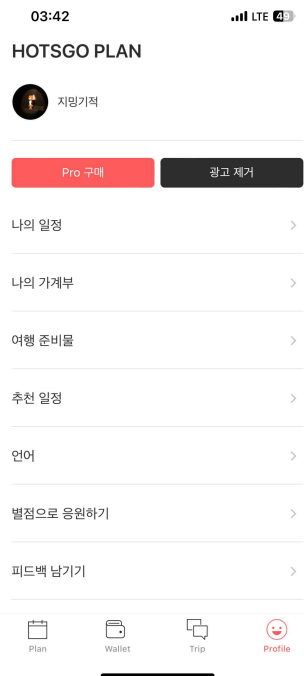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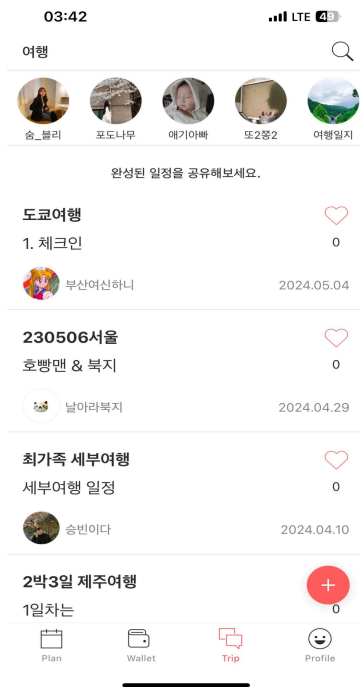
환율 있음, 메시지 기능 있음

썸네일 추가 기능 없음, 예약 기능 없음, 다크모드 없음

시간대는 지정 가능하나 거리마다 걸리는 시간은 보여 주지 않음

광고가 없고, 추천탭이 없어 일정을 보기에는 편함 -> dailytrip과 유사





마이리얼트립

여행 계획에 대한 기능은 존재하나 어플 내에서 예약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면 일정을 짤 수 없게 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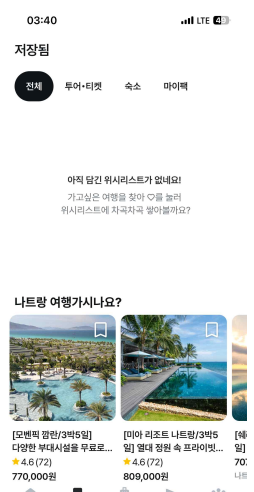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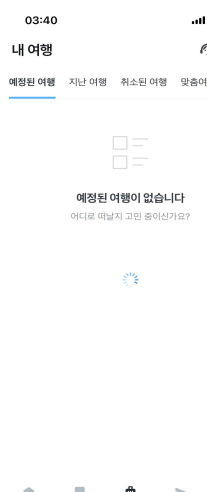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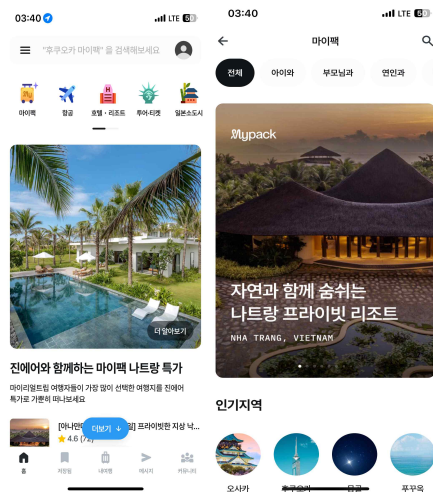
여행 패키지 기능 “마이팩” 존재 (아이와, 부모님과, 연인과 등의 카테고리로 대신 일정을 전부 만들어 주는 패키지)

커뮤니티 존재, 여행에 대한 실제 리뷰와 여행 동행자도 구할 수 있음

메시지 기능 존재,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 여행 후기를 들을 수 있음

저장됨 탭 존재, 내가 기록해 두고 싶은 곳을 찜해 두면 그것만 따로 보여 주는 카테고리가 있음 -> 트리플에서는 상단 메뉴에 들어가서 내 저장을 눌러야 볼 수 있음

보기 좋은 하단바 구성 -> 트리플 앱의 국내, 해외 하단바가 더 무쓸모하다고 느껴짐



트리플 앱 내 불편사항

같은 장소의 구글맵 장소명과 트리플 앱 장소명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

-> 비교한 다른 앱들 모두 장소를 입력해도 뜨지 않거나, 사용자가 미리 찾아서 확실한 가게명을 입력해야 장소가 나오는 형식이라 구동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음, 그러나 모두 구글맵을 사용

꼭 구글맵이어야 할까?

여행 경로를 수정할 때 다수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

-> 모든 어플이 불가능했음, 개선 시 상당한 장점

결제 직후 가게부를 작성하려고 할 때 가게부 아이콘의 가시성이 떨어진다

-> dailytrip, hotgosplan 모두 하단바에 가게부 아이콘이 따로 존재함

트리플 앱 하단바를 개선하여 가게부 카테고리를 넣으면 어떨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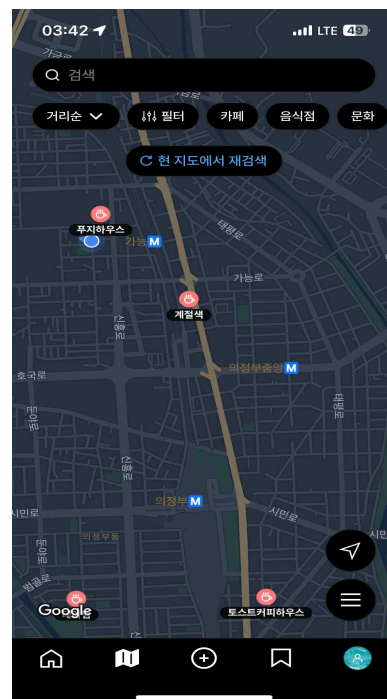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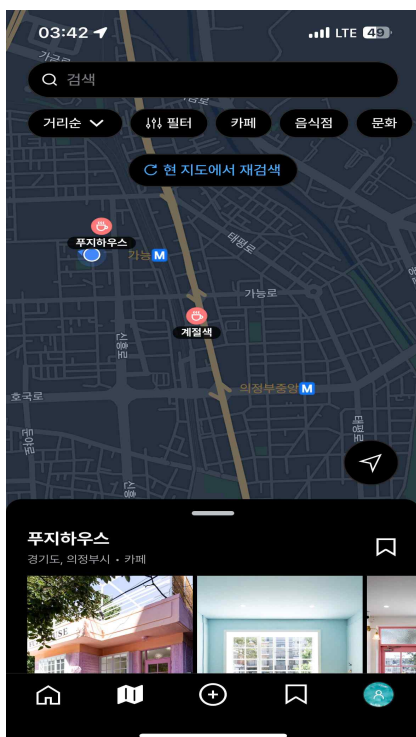
여행 일정 등록 후 메인화면 ui가 용이하지 못하다. 일정 등록 후에는 해당 일정의 내용 수정, 추가가 필수적인데 이 화면이 아닌 항공권, 숙소 등의 내용이 떠 있다

여행 일정 썸네일의 자유도가 존재하지 않는다

-> dailytrip에서는 썸네일을 클릭하면 사진을 바꾸시겠습니까? 하는 창이 뜬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 듯

일정 추가 화면에서 지도의 크기가 작아 지리 확인이 힘들다

-> 다른 어플 Daytrip에서는 장소 설명을 밑으로 내리면 지도의 크기가 확대돼서 보여짐



하루에 하나의 일정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대안 계획 추가가 불가능하다
-> 가능한 어플 없음

여행 일정의 시간대를 볼 수 없다

-> hotsgo plan에서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었음

사용자가 일정을 등록할 때 시간을 입력 가능 그런 식으로 고치면 좋을 듯

항공편을 제외한 이동수단의 등록 기능이 없어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

다른 사람의 여행코스 중 일부만 등록해 새로운 여행코스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

-> 가능한 어플 없음 유사 기능으로는 마이리얼트립의 마이팩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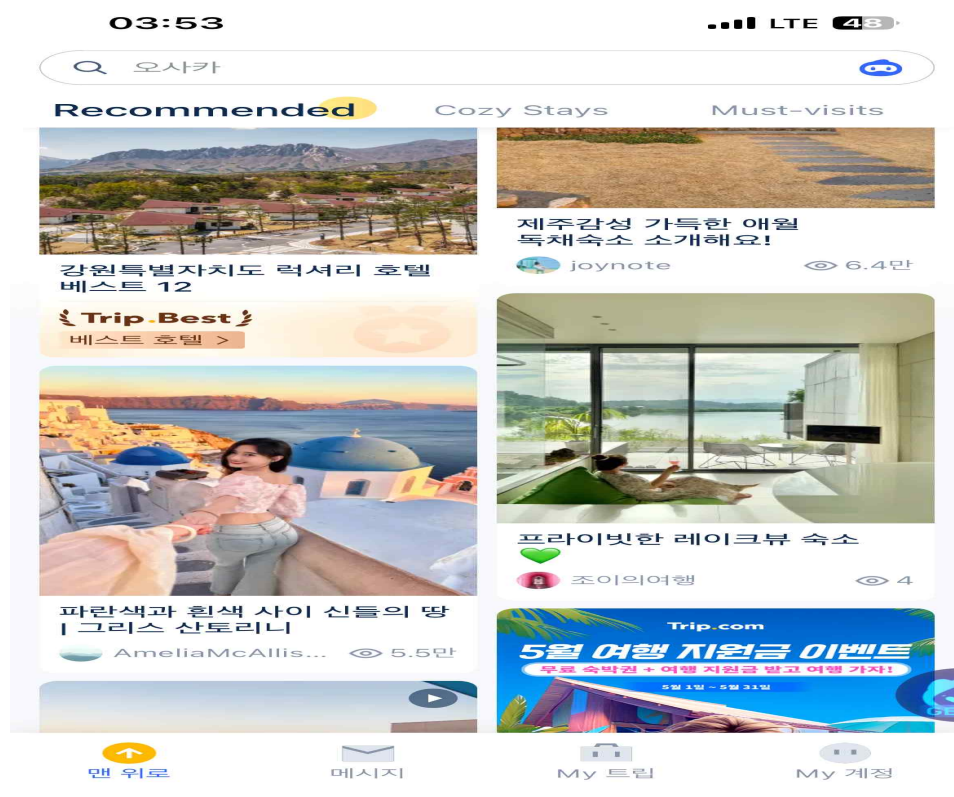
다른 사용자의 여행코스를 가져오는 기능 활성화 필요

다크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

-> 모든 앱이 다크 모드를 지원하지 않음

메인화면 스크롤 이벤트가 지나치게 길어 화면 하단의 여행 일정을 보는 것이 힘들다

-> 다른 어플 Trip.com에서도 메인화면에서 바로 추천하는 게시글들이 뜨는데 카드 이미지로 되어있어 트리플 어플보다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음



초기 화면부터 나오는 코스 추천이 부담스럽다

-> 위와 동일

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미리 등록해 둔 일정의 확인이 불가능하다

-> dailytrip, hotsgo plan 둘 다 인터넷 연결없이 일정 확인 가능하나 이 어플들은 광고와 추천 게시글이 없어서 가능한 것 같음

트리플 하단바를 수정하며 자신의 여행 계획만 볼 수 있는 탭을 만들고 그 기능은 와이파이가 없어도 볼 수 있으면 어떨까

초기 화면 네비게이션 바에 국내외 구분이 불필요하다

- 개선 필요

- 다른 어플들의 하단바가 보기에 훨씬 유용함

여행 장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사용자의 리뷰 작성이 가능하다

-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살펴보면 영수증이 있어야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거나 카드에 결제 내역이 있으면 작성 가능 그런 식의 인증 시스템 필요

- 다른 어플들은 리뷰를 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서 비교 불가